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麴醇(국순)은 자가 子厚(자후)이다. 그 선조는 隴西(농서) 사람이다. 90대조 牟(모)가 후직을 도와 백성들에게 곡식을 먹게 한 공이 있었다. 『시경』에 이른바 ‘나에게 보리를 주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모는 처음에 숨어 살며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갈아서 먹으리라.” 하며 밭랑 사이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에게 후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수레를 보내 부르니, 군현에서 그를 정성껏 보내어 신하로 하여금 그 집을 직접 찾아보게 하였다. 드디어 절구와 공이 사이에서 교분을 맺고 ① 화광동진(和光同塵)하게 되었다. 훈증되고 젓어 들어 ② 온자(醢藉)한 아름다움이 있게 되니, 모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를 이루어 주는 것은 벗이로다. 어찌 믿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얼마 뒤에 淸德(청덕)으로 소문이 나니 비로소 정문을 세워 그 마을을 표창하였다. 임금을 따라 원구에서 제사 지낸 공으로 中山侯(중산후)에 봉해졌고, 식읍 1만 호와 실봉 5천 호를 받았으며 성을 국씨라 하였다.

5세손 輔(보)는 성왕을 도와 사직을 자기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루어 ‘既醉(기취)’의 성대함을 이루었다. 강왕이 즉위하자 점차 소원해지고 꺼리는 바가 되어 금고형에 처해지니 고령에 기록되었다. 이로부터 후세에 현달한 자가 없어 모두 민간에 숨어 살았다. 위나라 초기에 순의 아버지 酎(주)가 세상에 이름을 알렸는데, 상서랑 서막과 더불어 조정에 인용되었다. 서막이 매번 말을 할 때마다 주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당시 어떤 이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서막과 주의 사사로운 사귀이 점차 자라나 어지러움의 계단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서막을 불러 꾸짖으니, 서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이 주를 따르는 것은 그에게 ③ 성인(聖人)의 덕이 있고 때때로 그것이 적중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그를 꾸짖었다. 진나라가 선양을 받자 장차 난리가 날 것을 알고 벼슬할 뜻이 없어 유령, 완적의 무리와 더불어 ④ 죽림(竹林)에서 노닐며 일생을 마쳤다.

[A] 순은 기국과 도량이 넓고 깊어 출렁거리는 것이 마치 만경창파와 같았다. 맑게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으니, 그 풍채와 맛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자못 기운으로써 남을 누르기도 하였다. 일찍이 엽법사를 찾아가 온종일 담론하니 좌중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압도당하였다. 드디어 이름이 알려져 국처사라 불리게 되었다. 공경대부, 신선, 방사로부터 하인,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듣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였다. 매번 성대한 모임이 있을 때 순이 오지 않으면 모두 슬퍼하며 말하기를,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하니, 그가 당시에 사랑받고 중히 여겨짐이 이와 같았다.

태위 산도가 감식안이 있어 일찍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어떤 늙은 할미가 이런 ㉠ 영형아(寧馨兒)를 낳았는가! 그러나 천하의 창생을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닐 수 없겠구나.” 하였다. 공부에서 ㉡ 청주종사(靑州從事)로 불렸으나 격상의 일이 소관이 아니라 하여 평원독우로 고쳐 임명되었다. 한참 뒤에 탄식하기를, “내가 다섯 말의 쌀 때문에 시골 어린아이에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마땅히 술그릇 사이에서 담론하리라.” 하였다. 당시 관상을 잘 보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얼굴에 자줏빛 기운이 떠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 종의 녹봉을 누릴 것입니다. 마땅히 좋은 값을 기다려 팔아야 합니다.” 하였다.

진나라 후주 때 양가집 아들로써 주객원의랑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그를 기이하게 여겨 장차 큰 뜻을 두려 하여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덮어 그를 뽑았다. 광록대부 예빈경으로 승진하고 공에 봉해졌다. 무릇 군신이 회의할 때 임금은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 짐작(斟酌)하게 하였다. 그 진퇴와 수작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깊이 받아들여 말하기를, “경은 이른바 곧은 사람이라, 오직 맑음으로써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씻어 주는 자로다.” 하였다.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 여진 이와 교제하고 손님을 접대하며, 노인을 봉양하고 잔치를 베풀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내는 일을 순이 주관하였다.

[B] 임금이 일찍이 밤에 잔치를 베푸는데 오직 궁인들과 더불어 모시게 하니 비록 근신이라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임금이 ㉣ 침술(沈酗)하여 정사를 폐하게 되었다. 순이 이에 그 입을 봉하여 말을 할 수 없게 하니, 예법을 따르는 선비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임금이 매번 그를 보호하였다. 순이 또 재물을 모으고 재산을 늘리는 것을 좋아하니 당시의 비평가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임금이 묻기를, “경에게는 어떤 벽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 두에는 전벽이 있었고 왕제는 마벽이 있었는데 신은 ㉤ 돈벽(錢癖)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크게 웃으며 그를 더욱 총애하였다.

일찍이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는데 순에게 원래 입 냄새가 있었다. 임금이 이를 싫어하여 말하기를, “경이 나이가 들어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인가?” 하였다. 순이 드디어 관을 벗고 사죄하며 말하기를, “신이 작록을 받고도 사양하지 않아 이와 같은 죽음의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신을 사저로 돌아가게 하시면 신은 죽음을 아는 분수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명하여 부축해 나가게 하였다.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들어 하룻밤 사이에 죽었

다. 아들이 없었으며 족제 淸(청)이 뒤에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내공봉에 이르렀다.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국씨의 선조는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함을 자손에게 남겼으니, 창이 주나라에 있었던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이 하느님께 닿았으니 가히 조상의 풍모가 있다고 하겠다. 순은 ㉔ 挈瓶(설병)의 지혜로 응유에서 일어나 일찍이 금그릇의 선택에 합격하고 술그릇 사이에서 담론하면서도, 옳음을 올리고 그름을 물리쳐서 미란된 왕실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산도)의 말이 족히 믿을 만하구나.

01

서술상 특징 파악 · 객관식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계의 내력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사의 흥망성쇠와 권력의 무상함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을 병치하여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과 소설적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여 세속적 욕망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지혜를 숨기고 속세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술의 친화력을 의미한다.
- ② ㉡: 세속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던 공간적 배경을 상징한다.
- ③ ㉢: 술의 품질 중 좋은 술을 의미하는 별칭으로, 관직에 임용되는 상황을 빗대고 있다.
- ④ ㉣: 술에 깊이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임금의 실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 ⑤ ㉤: 재물을 탐하는 습성을 의미하며, 순이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역설적 표현이다.

03

내용의 사실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순의 조상인 '모'는 백성을 먹여 살린 공로를 인정받아 성을 하사받고 제후에 봉해졌다.
- ② 국순의 아버지 '주'는 서막과의 사사로운 친분 때문에 임금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 ③ 국순은 태위 산도로부터 장차 천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할 인물이라는 예언적 평가를 받았다.
- ④ 국순은 진나라 후주 시절에 능력을 인정받아 국가의 주요 회의에서 임금의 의사 결정을 도왔다.
- ⑤ 국순은 자신의 입 냄새를 지적하는 임금의 태도에 분개하여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04

[보기] 종합 감상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를 기록한 문학 양식이다. 이는 대상을 예찬하기보다 그 속성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인물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대조함으로써 독자에게 '지족(知足)'의 가치를 전달한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사신(史臣)'의 평가는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인물의 공과 실을 엄격히 따져 도덕적 교훈을 완성한다. 국순전에서는 술이 지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폐해'가 인물의 사회적 부침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 ① 순이 '국처사'로 불리며 모든 이의 흠모를 받은 것은 술이 지닌 긍정적 기능을 인물의 명망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산도가 순을 보고 '창생을 그르칠 자'라고 경계한 것은 술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투영된 복선이겠군.
- ③ 순이 권세를 얻은 후 '재산을 늘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설정은 술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을 풍자한 것이겠군.
- ④ 순이 임금의 총애를 잃고 물러나며 '知止(지지)'를 언급한 것은 <보기>에서 말하는 '지족'의 가치를 인물의 입을 통해 직접 전달한 것이겠군.
- ⑤ '사신'이 순의 선조를 예찬한 것은 순의 타락이 개인의 결함보다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군.

05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술이 숙성되어 맛이 깊어지는 과정을 인물의 성품이 온화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도덕적 완성을 이룬 인물을 뜻하며, 주의 술 냄새를 맡고 진리를 깨달은 서막의 경지를 예찬한다.
- ③ ㉢: 뛰어난 아이를 칭찬하는 말로, 산도가 순의 미래가 국가의 동량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④ ㉣: 헤아려 살핀다는 뜻으로, 임금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유교적 경전의 가르침을 인용함을 의미한다.
- ⑤ ㉥: 병을 드는 작은 지혜라는 뜻으로, 순이 지닌 뛰어난 통치 철학이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음을 상징한다.

06

인물의 말하기 방식 분석 · 객관식

[B]에 나타난 '순'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인용하여 자신의 부정적 습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임금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③ 타인의 비판이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다.
- ④ 우회적인 비유를 통해 임금의 실정을 간언하며 정치적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한탄하며 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07

소재의 상징적 의미 · 객관식

윗글에서 '금으로 만든 그릇(金甌)'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이 지닌 탐욕스러운 내면을 투영하여 보여주는 소재이다.
- ② 인물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출세했음을 상징하는 징표이다.
- ③ 인물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임금이 제시한 시련의 매개체이다.
- ④ 인물을 중용하려는 임금의 각별한 의지와 기대를 나타내는 장치이다.
- ⑤ 인물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초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계기이다.

08

서사 구조와 전환점 파악 · 객관식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입부에서는 인물의 선조가 세운 공적을 제시하여 가문의 내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전개부에서는 인물이 뛰어난 기국을 바탕으로 사회적 명망을 얻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전환부에서는 인물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가 부패하고 예법을 중시하는 무리와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절정부에서는 인물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임금에게 직언을 올림으로써 왕실의 질서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 ⑤ 결말부에서는 인물의 죽음 이후 사신의 평가를 통해 인물의 생애를 비판적으로 갈무리하고 있다.

09

인물의 태도 변화 · 객관식

윗글의 '임금'이 '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의 재능을 의심하여 멀리하다가, 그의 충심을 확인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 ② 순의 기이함을 높이 평가하여 중용하다가, 그의 노쇠함과 결점을 이유로 소원해진다.
- ③ 순의 방탕함을 경계하여 징계하다가, 그의 해학적인 태도에 감화되어 동반자로 삼는다.
- ④ 순의 가문을 배경으로 등용하였다가, 순의 독단적인 정사 운영에 위협을 느껴 축출한다.
- ⑤ 순의 청렴함을 예찬하며 의지하다가, 순이 재물을 탐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10

인물의 심리 및 갈등 · 객관식

윗글의 '예법을 따르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이 임금의 충애를 독점하여 자신들의 관직 진출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 ② 순이 임금을 방탕하게 만들어 유교적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 ③ 순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뒤로는 막대한 재산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 ④ 순이 근신들의 조언을 가로막고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이기 때문에
- ⑤ 순이 출신 성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관직을 차지했기 때문에

〈보기〉는 윗글의 '순'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A: 순은 처음에는 도량이 넓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결국 권력의 맛에 취해 타락한 인물 같아.

학생 B: 맞아, 특히 임금의 총애를 배경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모습은 전형적인 간신의 모습이지.

학생 C: 하지만 마지막에 임금의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 물러난 것을 보면, 최소한 자신의 처지를 파악할 줄 아는 영악함은 있었던 것 같아.

학생 D: 결국 사신이 비판한 것도 순이 가진 재능을 올바른 곳에 쓰지 못하고 왕실을 어지럽혔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어.

- ① 학생 A의 의견은 순이 '만경창파'와 같은 기국으로 '국치사'라 불리며 흠모받던 초기 모습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겠군.
- ② 학생 B의 의견은 순이 '돈벽'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임금의 보호 아래 재산을 모으던 행태와 연결되겠군.
- ③ 학생 C의 의견은 임금이 자신의 입 냄새를 싫어하자 '죽음의 화'를 언급하며 은퇴를 청한 순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학생 D의 의견은 사신이 순을 '설병의 지혜'만 가졌을 뿐 '미란된 왕실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평한 대목과 일치하겠군.
- ⑤ 모든 학생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순은 선조의 청백한 가풍을 이어받아 끝까지 지조를 지키려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겠군.

윗글의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순은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인물인 반면, [B]의 순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주하는 인물이다.
- ② [A]에서는 술이 지닌 사교적 즐거움이 부각되고, [B]에서는 술이 지닌 정치적 폐해가 부각되고 있다.
- ③ [A]는 순이 타인과 갈등을 빚는 과정을, [B]는 순이 타인과 화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A]의 공간적 배경은 중앙 조정이며, [B]의 공간적 배경은 민간의 사가로 설정되어 대조를 이룬다.
- ⑤ [A]에서 순은 임금의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나, [B]에서 순은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태도를 보인다.

윗글의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다음 중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① 90대 조 牟(모)가 후직을 도와 백성들에게 곡식을 먹게 한 공
- ② 輔(보)가 성왕을 도와 사직을 자기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룬 것
- ③ 酎(주)가 서막과 더불어 조정에 인용되어 성인의 덕을 보인 것
- ④ 醇(순)이 권세를 얻어 노인을 봉양하고 제사와 종묘 일을 주관한 것
- ⑤ 淸(청)이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내공봉에 이른 것

윗글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중용되어야 한다.
- ②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일수록 자신의 분수를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 ③ 사사로운 친분보다 공적인 의리를 중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으뜸가는 덕목이다.
- ④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 ⑤ 통치자는 주변의 유혹을 경계하고 예법을 중시하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신의 평가 중 '거원(산도)의 말이 족히 믿을 만하구나'라는 구절이 함축하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도가 순의 가문이 지닌 청백한 가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음을 의미한다.
- ② 순이 결국 천하의 웃음거리가 됨으로써 산도의 예언적 우려가 적중했음을 확인해 준다.
- ③ 산도가 순을 '영형아'라고 부르며 예찬했던 것이 순의 실제 능력과 부합함을 인정한다.
- ④ 순이 권력을 잡은 뒤에도 산도와 의리를 지키며 정사에 임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⑤ 산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순을 끝까지 보호했던 임금의 결단이 옳았음을 뒷받침한다.